

“적조 예찰 드론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를”

전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전기 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완화 촉구도

“적조 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 비행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전기 이륜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해 완화 ▲전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며 “최근 전남 주요산업인 조선업·석유화학 업종이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지역 기업인과 어업인들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경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적조에 잡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에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출퇴근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등을 건의,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며 “최근 전남 주요산업인 조선업·석유화학 업종이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호 전남도 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중인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농어·귀촌분과를 통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례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시장 측근 접수 논란 “행정 감시해야 할 의회에 선거캠프 인사 안 맞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개방형 4급 상당) 공모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방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 가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복지위원장인 박미정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개적으로 이용섭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마저 ‘시장 사람’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환경복지전문위원 공모에 모두 8명이 서류를 접수했고, 오는 9일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 2~3명을 뽑아 14일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예산·결산 심의를 조언하고, 광주시의 예산·결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의회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5860만~873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현재 이 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와 광주지역 일선 구청에서 감사임무를 맡았던 B씨가 경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시의원을 간에서도 A·B씨의 지지가 엇갈리면서 특정 응시자 지지와 관련,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말썽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단체장과 손발을 맞춰 일 한 인사들이 시청과 산하기관에 포진하는 일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광주시를 감시해야 할 의회 전문위원마저 단체장 측근이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급증

올들어 전년보다 3배 늘어

광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시의회 장재성(민주·서구1)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명에 불과하던 제한기관 취업 공직자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2명, 2017년 4명, 올해 11명으로 급증했다.

기술직과 소방직의 유관기업체 취업이 대부분이고, 퇴직 당시 직급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퇴직 후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직무 연관성이 밀접해 보이는

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밀접한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액을 부풀리거나 공사 편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형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는 “업체에서 공직경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과 함께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취업제한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순천시 소상공인 민박간담회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
창업·안정자금 확대 등 설명

김영록 전남지사가 순천에서 민박을 하며 지역 소상공인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 9월 담양에서 친환경농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한 데 이어 두번째 민박간담회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저녁 순천의 한 펜션에서 민박간담회를 열어 지역 소상공인들과 밤 늦도록 대화를 하며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펜션에서 1박을 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가 구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

련해 소상공인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민선7기 공약인 ‘재천년 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등의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또 신규 시책인 전남 소상공인 지킴이 적금 출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신용 하위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이 행복해야 전남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게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워 힘들지만 전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줘 희망을 느낀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 지원, 전남 10개 시장 시범 선정 대표특화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논의된 대책들이 소상공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당장 해소해주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향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소득 증가를 체감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들녘경영체 등에 올해산 벼 940t 우선 공급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018년산 벼 보급종을 일반농가 신청에 앞서 정부 지원 미국종합처리장(RPC) 등 우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정부 지원 미국종합처리장·들녘경영체·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순도 높은 우량 종자를 우선 배정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신청이 가능한 품종은 새일미 340t, 신동진 350t, 미품 90t, 영호진미 100t, 해품 60t 등 총 5개 품종 940t이다. 2018년산 벼 공급계획량의 25% 수준으로 신청물량에 대한 공급량 확정은 19~21일 배정한다.
벼 보급종 우선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지역 수도계량기 동파 연평균 600건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총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600건이 발생한 것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보성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광 110건, 신안 107건, 여수 102건 등이다.
이는 동파에 취약한 습식계량기가 약 80%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대책

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노후주택과 상습 동파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상황반과 긴급 복구반을 운영해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요금 고지서와 시군 소식지 등에 동파 예방 홍보문을 게재하고 각 가정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과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도 추진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